



자유무역협정 이제 중남미의 시대

한·메르코수르 FTA 가능성과 한·중미 FTA 실질타결의 의미

한중FTA 활용, 1 3 8 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 3 8 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결론적으로, 한·메르코수르 FTA 가능성에 대한 해답은 상당히 복잡하다.

p12 커버스토리

지난 25년간 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 관계를 유지해 온 메르코수르는 최근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방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코수르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내 및 대외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복잡성 등 협상에 대한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한·메르코수르 FTA의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산타루시아 언덕에 오르면 산티아고의 오래된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다. 그곳에는 이 도시를 세운 스페인 정복자 발디비아와 그에 저항했던 원주민 추장 카우포리칸의 동상이 서 있다. 다른 지역의 역사박물관에도 백인 정복자와 원주민의 모습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칠레인 마음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이다.”

p18 도시를 훑치다

2018년 독립 공화국 선포 200주년을 맞이하는 칠레는 뼈 아픈 역사적 경험이 많지만 그것들을 깊은 울림의 노래로, 사랑의 시로, 감동적인 영화로 표현하며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7월에는 길고 아름다운 나라 한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 같은 도시 산티아고를 만나봅니다.

2004년 2월 10일 밤 9시, 멕시코 만사니요 항구는 마치 초상집과도 같았다. 한국행 선박에 선적되던 것은 한국에 가져갈 멕시코산 수출품이 아니었다. 멕시코에 수출돼 20일간 태평양을 건너 뱃길을 달려온 한국산 타이어가 멕시코 통관도 거치지 못하고 반송 결정되면서 하역 한 달여 만에 다시 선적된 것이다.

p28 FTA History

한국은 멕시코와의 FTA에 있어서 한 차례 쓴 맛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칠레와의 첫 FTA 발효에 성공했던 2004년의 이면에는 멕시코와 FTA 미체결로 인한 아픈 기억도 있지요. 우리의 신정부 출범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다시금 동력을 얻게 ‘FTA 스페셜리스트’ 멕시코와의 FTA를 다시 꺼내봅니다.

Contents

JULY 2017 vol.62



한·콜롬비아 FTA 1주년, 한·중미 FTA 가시명 완료, 그리고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까지 바야흐로 중남미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FTA 협정을 맺은 칠레와 페루까지 더해 중남미 FTA의 완벽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지금, 역동적인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상황과 통상 환경을 짚어봤습니다.

COVER STORY

최근 '개방주의'로 노선 변경을 선언한 메르코수르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 혹은 체결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 BRIEFING

01 이달의 FTA 브리핑

ISUUE FOCUS

- 04 카드뉴스: 마켓 4.0 시대
- 06 육아일기 대신 육아 앱 쓰는 요즘 중국 엄마들
- 07 4차 산업 지원 위해 70년 만에 바꾼 일본의 JIS 규정
- 08 중남미 지역 FTA의 허브로 발돋움 할 콜롬비아 보고타

FTA CARTOON

10 민대리의 뽀빠여행

COVER STORY

자유무역협정, 이제 중남미의 시대

- 12 'Two-Level Game'으로 바라본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선택
- 16 아메리카 FTA 퍼즐이 거의 맞춰지다

FTA & LIFE

- 18 도시를 훑치다: 칠레, 산티아고
- 20 트렌드를 읽다 : 페루&콜롬비아 페루 최초의 산업 신도시, Macropolis 산업단지 프로젝트
- 21 2017년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 예보 전년 대비 '맑음'

FTA WIKI

- 22 FTA 용어사전: 어려운 무역기사 쉽게 읽는 법

MEET

- 24 FTA 청년 리포터를 소개합니다
- 26 우리 농어업인 지원 사례 : 봉추푸드시스템

FTA PRACTICE

- 28 2017 한·멕시코 FTA ver.2 : 회항(回航)을 회상(回想)하며 꿈꾸는
- 30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 중국 보호무역장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32 중국 IP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 상표권 침해 사건
- 34 FTA 초보자를 위한 기초 활용 노하우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 36 사례로 배우는 실전 FTA 활용법: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나요?

FTA NEWS

- 38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

BOARD

- 40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일정 정보 & 독자 알림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7년 7월 1일(통권 62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켓 4.0 시대

시장이 아닌
'소비자'에
주목하는 시대

“과거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이던 **STP**도
4C 이론도
모두 다 수정돼야 한다.”



필립 코틀러
(세계적인 비즈니스 구루)

마켓 4.0은
초연결성의 시장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수요는 분산되고, **이질적인 시장이 공존합니다.**

보다 작고, 보다 젊고,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천재형 애플에서
현장형 샤오미로

과거 혁신의 대표 상징이던 애플이
천재에 의한 혁신이었다면
이제 진짜 혁신은
현장에서 **고객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성이란 이제 **특별한 개인이 아닌**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나옵니다.

자동화, 기계화로 대변되는
ICT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산업과 함께 시장도 변해왔습니다.
제품 중심의 마켓 1.0
고객 중심의 마켓 2.0
인간 중심의 마켓 3.0



그리고, 이제 **마켓 4.0**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켓 4.0은 어떤 시장일까요?

하위문화가
주류문화로

연장자·남성·시티즌에서
이제는 젊은이·여성·네티즌으로

완벽이 아니라
친절을 위해

똑똑한 마케터보다
영향력 있는 친구의 평가와 추천

즐기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마켓 4.0 시대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료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필립 코틀러 외, 더퀘스트, 2017



[App]

육아일기 대신 육아 앱 쓰는 요즘 중국 엄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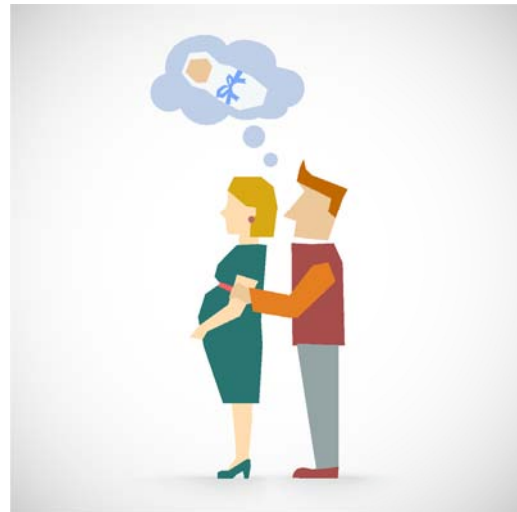
출산·육아 앱은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관련 지식, 경험의 공유 및 교류, 영유아 제품의 소개 및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출산·육아 지식 게시판,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각종 영유아 관련 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바링허우, 지우링허우에게 사랑받는 출산·육아 앱

중국 '두 자녀 정책'으로 신생아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영유아 시장 규모 또한 커졌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영유아 시장 규모는 약 2조 위안으로 바링허우, 지우링허우(八零后, 九零后: 1980, 1990년대에 출생한 중국인들)가 주요 소비 계층이다. 소득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층은 앞으로도 주요 소비층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 시장의 주요 계층인 바링허우, 지우링허우는 비교적 신세대에 속하지만 대다수가 외동아들이거나 외동딸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 계층은 책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육아 지식을 찾아보는 것을 선호했고, 이는 곧 중국 출산·육아 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최근 성장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또한 중국 출산·육아 앱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이의 성장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앱 사용

영유아 가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특히 가족단위 영유아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Research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영유아 가구 중 약 70%가 친척·동료의 추천으로 출산·육아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앱스토어 추천 및 SNS 광고로 출산·육아 앱을 접하게 되는 비율은 각 11.6%,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및 이동통신 서비스의 발전이 출산·육아 앱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육아 앱 사용자 중, 86.8%는 아이의 성장 모습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의 약 70%는 출산·육아 앱을 통



해서 가족구성원 간에 아이의 근황을 공유하거나 육아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40.2%는 아이의 조기 교육을 위해, 32.3%는 영유아 제품 구매를 위해, 26.1%는 SNS에 아이들의 근황을 공유하기 위해, 22%는 영유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위해 출산·육아 앱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가구는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과 동일한 구매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영유아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유아 온라인 쇼핑물, 영유아 관련 앱 자체 쇼핑물, 영유아 관련 위챗 공중계정(微信公众号) 등을 통해 영유아 제품을 구매하는 중국인들의 비율은 다른 계열의 제품 대비 가장 높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에서 영유아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기타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보다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았다.●



[Industry]

4차 산업 지원 위해 70년 만에 바꾼 일본의 JIS 규정

지난 5월 1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골자에는 규칙 고도화의 일환으로 JIS법(공업표준화법)¹의 대상 확대 및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체제 강화가 포함되었다. '신산업구조 비전'은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으로, 2016년 4월 제시된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구체화 및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골자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부정경쟁 방지법, 공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의 일괄적 개정 계획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심의회에서는 곧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여름 중 공업표준화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격화 대상 확대와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표준 제정 시간 단축

JIS 규격화 대상에 서비스 등 성장분야도 추가할 계획으로, 법률 이름도 기존 공업표준화법에서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꿀 전망이다.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 및 최근 성장세에 있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서비스, IoT를 활용한 품질관리 및 에너지 절약 서비스, 스마트 공장 및 관광 서비스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 분야 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미 서비스 분야 규격도 인정하고 있어 JIS 인증을 따면 그대로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옴론 등 일본 기업 100개사는 2020년에 IoT에 축적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방대한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회를 창출했다. 구글 등 현재 IoT를 활용한 개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가고 있는 서양 세력을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규격 대상 확대에 더해 민간 주도의 JIS 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즉 현재는 경제산업성 공업표준 조사회(JISC) 심의를 받아야 JIS를 제정할 수

¹ 일본공업규격(JIS)이란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해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 안전성 향상, 생산효율의 증진 등을 위해 일본 공업표준조사회(JISO)의 심사를 거쳐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으로 현재 건축, 자동차, 철도 등 약 20개 분야에 대해 품질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있으나, 일본 규격협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면 심의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규격 제정을 통해 IoT 등 첨단 분야에서 일본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 규격 개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사격 본격화

대상 분야를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에서 창출되는 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민간주도로 프로세스를 바꿈으로써 보다 신속한 규격 제정이 가능해져, 첨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최근 국제표준 강국인 독일과의 협력 강화, 드론 및 차세대 자동차 국제 표준 제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표준 준수 여부가 제품과 서비스 수출입 실적에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리 박주연 기자 | 자료 KOTRA 무역관

이번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 KOTRA 및 관세청 관계자 그리고 콜롬비아 관세청, 개발청, ProColombia(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 경제인협회, 한·콜롬비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콜롬비아 진출 한국기업 및 FTA 활용에 관심 있는 콜롬비아 기업인 등 총 24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중남미 지역 FTA의 허브로 거듭나겠습니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1주년에 맞춰 ‘한·콜롬비아 FTA 활용지원센터’가 지난 6월 9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문을 열었다. 중남미 지역 첫 번째 FTA 활용지원센터가 개소된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중남미 지역 FTA의 핵심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에 거둔 좋은 성적

2017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 1주년을 맞는다. 콜롬비아는 한국이 칠레 및 페루에 이어 FTA를 체결한 세 번째 중남미 국가이자 중남미 4위 경제규모의 핵심 소비시장이다. 또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기도 하다. 한·콜롬비아 FTA는 발효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2016.8~2017.4) 양국 간 교역액은 1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

비 약 22.8% 증가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순으로 수혜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무선전화기의 경우 올해만(2017년 1월~4월) 8,024천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총 수출금액인 5,938천 달러를 웃도는 금액으로 관세 즉시철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로부터는 유엔탄, 커피, 화초류 등 콜롬비아의 수혜 품목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중남미에 문 연 제1호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이러한 발효 초기 효과 확대를 위해 한·콜롬비아 FTA 발효 1주년에 맞춰 ‘한·콜롬비아 FTA 활용지원센터’가 지난 6월 9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 KOTRA, 관세청이 참석하고 콜롬비아 관세청, 개발청, ProColombia(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 경제인협회, 한·콜롬비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콜롬비아 진출 한국기업 및 FTA 활용에 관심 있는 콜롬비아 기업인 등 총 24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는 당초 참석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으로 FTA 활용에 대한 콜롬비아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개소식은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하의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과 FTA 활용지원 약속을 담은 조영신 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한·콜롬비아 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어 FTA 체결에 대한 양국정부의 큰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연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도 FTA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발표들이 이어졌다. 양국 KOTRA 중남미지역본부장은 FTA 활용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센터 활용의 이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KOTRA적인 ProColombia의 Felipe Jarmaillo 사장은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농산품 등 1차 상품의 교역량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콜롬비아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에 적극 진출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KOTRA 보고타 무역관장은 한·콜롬비아 FTA 1년의 성과 및 전망과 더불어 무역관에 설치된 FTA 활용지원센터의 활용을 적극 주문했다. 설명회는 한국 관세청의 FTA 지원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 되었다. 연사들의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Q&A 세션은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참석자들의 FT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VIP로 참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2016년 8월~2017년 4월) 10대 교역 품목(단위: 천 달러)

순번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승용차	137,562	22.2%	유연탄	320,021	60.2%
2	자동차 부품	88,605	14.3%	커피류	75,151	14.1%
3	합성수지	55,087	8.9%	동괴 및 스크랩	49,243	9.3%
4	기타 석유화학제품	37,734	6.1%	합금철	34,182	6.4%
5	타이어	32,776	5.3%	농약	10,669	2.0%
6	아연도강판	18,557	3.0%	승용차	10,188	1.9%
7	기타 플라스틱제품	14,527	2.3%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415	1.6%
8	공기조절기	11,816	1.9%	화초류	6,087	1.1%
9	세탁기	11,659	1.9%	고철	2,695	0.5%
10	냉연강판	11,445	1.8%	무선통신기기 부품	2,156	0.4%
총액		619,108		총액	531,458	

자료: 무역협회

석한 두란 미겔 한·콜 상공회의소 회장은 17년간의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근무 경험을 살려 참가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양국에 윈윈되는 FTA로 거듭나도록

이날 개소식 및 설명회 참가자들의 한·콜롬비아 FTA 활용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콜롬비아 바이어는 작년 FTA 발효 당시 많은 콜롬비아 기업인들이 한·콜롬비아 FTA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콜롬비아와 한국 모두 FTA를 활용하여 윈-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진출 한국기업은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어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차별받았던 프로젝트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다고 언급하며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에 지렛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촉된 통관·물류분야 자문위원은 중남미에서도 통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콜롬비아 세관의 입장변화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한·콜롬비아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주체인 KOTRA 보고타 무역관은 현재는 전담인력 1명과 자문위원 5명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인력을 충원하여 상담 및 고충해결, 이동 상담회 및 정기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원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남미 지역 첫 번째 FTA 활용지원센터가 개소된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지난 3월 가서명된 한·중미 FTA 및 현재 협상 중인 한·에콰도르 FTA까지 마무리된다면 중남미 지역의 FTA의 핵심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이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자유무역협정, 이제 중남미의 시대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가능한가?

한·중미 FTA 실질타결의 의미와 시사점



‘Two-Level Game’으로 바라본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선택

지난 25년간 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 관계를 유지해 온 메르코수르는 최근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방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의 ‘개방주의’ 노선의 핵심을 찾는 것은 향후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 혹은 체결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체결 가능성?

2017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은 앞다투어 한·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가능성과 협정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양 지역 간 관계 개선 전망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상호 윈-윈 관계로 발전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양 쪽 모두 ‘무역 다변화’를 통한 무역과 투자 증진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일반적인 쉼법이 작동하고 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쪽 모두 서로 보완적 차원의 무역과 투자 증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우세하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현재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 전략과 방향에서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지역(2004 칠레, 2011 페루, 2016 콜롬비아), 중미 지역(2017 한·중미 FTA 가서명)을 넘어 마지막으로 대서양 지역(메르코수르)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라틴아메리카 전체 대륙으로 자유롭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대(對)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메르코수르 진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열망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연구해 온 국내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의 일관된 협정체결 바람을 담은 섬 없는 전략연구와 정부와 기업들의 산업통상 정책보고서에서 언제나 공통된 긍정적 의견이 제시되었다(산업통상부, 외교부, KOTRA, KIEP,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등).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공동체 정체성이 강했던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실질 협상은 연구와 경제성 평가 이후 단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메르코수르 경제공동체의 폐쇄적 성격이 ‘개방주의’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향후 한·메르코수르 협정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991년 4개국으로 출범 이후, 2012년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세를 확장한 메르코수르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대서양 중심의 경제를 대표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해 있다.¹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이 공동체는 회원국 간 역내 통합과 역내 시장 보호 및 강화에만 집중해 오면서 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할 정도로 배타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메르코수르의 주요 회원국들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전략으로 무역 다변화 및 역외로의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방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선언하고 있다. 과연 이 ‘개방주의’라는 용어는 메르코수르 공동체의 역외 대외무역 정책 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특히 메르코수르의 리드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은 기존의 전략을 버

리고(?) 왜 ‘개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찾기는 사실 향후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 혹은 체결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메르코수르의 리드 국가이자 현재 위와 같은 새로운 방향 결정과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적 배경 이해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 혹은 국제협상 참여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의 반영이자 공동체 내 회원국 사이의 상호 갈등과 연대가 작용해 새로운 결정과 선택이 가능한 일종의 ‘Two-level Game’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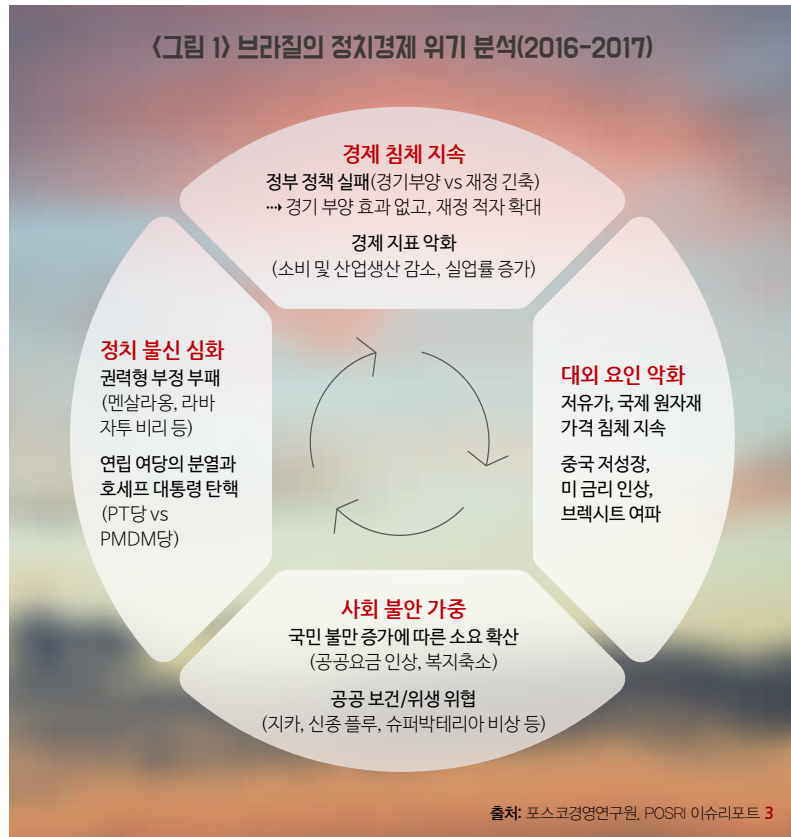
메르코수르 리드 국가 브라질-아르헨티나

국내 정치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

2003년~2010년 사이 8년 동안 집권한 룰라 정부에 이어 한때 브라질 정치 역사상 ‘최초’라는 수사로 정치적 인기를 누렸던 노동자당 출신의 호세페 여성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탄핵(2016년 9월) 그리고 뒤를 이어 집권한 테메르 정부(우파 성향)의 경제위기 지속은 여전히 브라질의 정치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브라질의 정치경제 불안 원인들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심화, 경기 침체 지속, 사회 불안 가중, 무역과 투자에서 대외 취약성 악화 등으로 브라질을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가고 있다(그림 1). 비상구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총체적인 국내 정치경제 불안정 요소를 이웃 공동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대외 전략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메르코수르를 활용한 국면 탈출 그리고 새로운 무역과 투자 유치를 위해 메르코수르 차원의 개방과 개혁으로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일종의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외적 방향으로 돌리거나 혹은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

1 메르코수르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이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기로 하면서 출범했다. 2012년 말에는 베네수엘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가입 당시 남미 회원국들의 베네수엘라 허용은 1) 대부분 회원국들이 좌파정부라는 정치 이데올로기 공통점(우고 차베스), 2) 베네수엘라가 당시 GDP 3,370억 달러(약 402조 원), 인구 3,040만 명을 가진 남미 대륙 5위의 경제 대국이었다는 점, 3) 베네수엘라의 가입은 메르코수르를 중남미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부상시키고 동시에 경제공동체 영역을 중미와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자 하는 팽창 열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입 당시 4년 안(2016년까지)에 공동관세 적용 등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필요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근 회원국 자격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우고 차베스 사후(2013년 3월) 등장한 니콜라스 마두르 좌파 정부의 정치경제 운영 실패(하이피인플레이션, 사회불안 증가, 탄핵위기)는 이러한 퇴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메르코수르의 기존 회원국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회원국들이 요구한 민주주의 정착, 교역조건 마련, 인권상황 개선 등의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격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2 Robert D. Putnam의 국제협상의 분석틀로 국제협상을 국내적 차원의 게임(Level II)과 국제적 차원의 게임(Level I)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는데 Putnam은 이들 두 가지 수준의 게임 상황이 상호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협상에서 협상 대표들은 협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모든 이해 관계자 간의 협상을 통해 국제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국내적인 협상은 국가 간의 협상 결과가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내 정치적 과정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시 국가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3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63/14202/63_14202_file_pdf_1470709358.pdf

4
2001년의 경제위기와 디폴트 그리고 외채협상에 서 불협화음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한 좌파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국제금융기관과는 단절된 상태로 국가를 운영해 왔다. 2014년에는 헤지펀드와의 부채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상환 위기 및 재정적자를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정부는 외화통제, 자본통제, 환율통제, 수입통제 등의 무역/투자를 통제하는 강한 폐쇄 정책을 펴 왔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복지는 열악해 지고 사회적 불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으로 빠른 노선 전환은 제한적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중도우파 정부로의 정권 교체지만, 좌파정부 당시 아르헨티나의 정당정치 의 핵심인 상·하원에서 과반이 넘는 다수가 기존 좌파 정치인들로 포진되어 있다(현 집권 여당이 72개의 상원의석에서 17석, 257개 하원의석에서 87석 차지).⁵ 2017년 10월에 있을 선거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행정부가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메르코수르를 통한 개방/개혁 정책으로의 노선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금년도 10월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러한 노선 전환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Two-Level Game 속 브라질-아르헨티나의 국제적 공동 대응과 선택

이와 같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내 정치경제 위기 타결 방안인 메르코수르 개방·개혁 정책은 기존의 메르코수르 규칙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난다. 브라질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자무역협정 대신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 변경을 검토하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2000년 제정된 메르코수르 규정 'Decreto 32'(관세협정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무역협정 체결은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모두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를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이에 대한 빠른 개선 합의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의해 리드되고 있다.⁶

메르코수르 대국들로서 그리고 정회원국으로서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기존 규정에 대한 개선 약속과 혹은 향후 메르코수르의 개방·개혁으로의 방향 개선에 대한 합의는 사실 양국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공동 대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⁷ 미국 로널드 트럼프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 신보호무역주의(NAFTA 재협상) 영향,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5
마끄리 대통령 소속 우파 정당은 상원의석의 28%, 하원의석의 26%로 페론주의 성향 정당들이 여전히 상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신정부가 추진할 각종 개혁 법안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전체 24개 주 중 15개 주의 주지사가 페론주의 성향을 띠고 있어 현 대통령의 4년 임기 후 페론주의자들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충분한데 이는 수십 년간 정부 보조금과 노동자 우선 정책을 익숙해져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정서가 일시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 때문이다(오영일, "아르헨티나 포퓰리즘과 이별: 신정부 경제정책과 사업환경 변화", p. 8 인용,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63/13820/63_13820_file_pdf_1455758786.pdf 참고). 올해 아르헨티나 총선은 2017년 10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

6
메르코수르 전체 회원국을 규제해 온 이 규정 때문에 남미의 맹주 국가인 브라질은 현재까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단지 3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그나마도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 1건 뿐이다.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FTA를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협상이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장기간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브라질과 매번 의견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1999년부터 진행 중인 메르코수르·EU 간 FTA의 경우도 아르헨티나의 반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7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정회원국 4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국들이지만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으로 참여중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대국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리드하는 보호무역/통상 정책에 반대 혹은 저항해 오면서 항상 양자무역협정 체결에 선호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우루과이의 경우 최근 중국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기존 규정 변경에 대한 회원국 사이의 합의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8
2012년 설립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은 실용주의적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노동자당 출신의 호세피 여성 대통령 뒤를 이어 집권한 브라질 테메르 정부(좌)는 국내 정치경제 불안정 요소를 이웃 공동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대외 전략을 펴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마끄리 우파정부(우) 역시 집권과 동시에 친(親)시장 정책,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책을 표방하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자원 수출에서 중요한 국가로 성장해 온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요인들은 더 이상 기존의 메르코수르 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기존의 협소하고, 다소 폐쇄된 정체성, 보호무역주의에서 탈피해 이제는 다른 경제 블록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다변적 무역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선 전환에 대한 이러한 양국의 움직임은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기존 좌파정부와는 달리 마끄리 정부는 13년 만에 다보스 경제 포럼에 참가하여 선진국과의 교역강화에 중점(2016년)을 두는가 하면, EU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태평양 유역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 옮겨버 국가로 참여하는 등 개방·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다.⁸ 브라질의 경우, 메르코수르·EU FTA에 적극적이다. 메르코수르·EU 간 FTA 협상이 지연된다면 우선적으로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론적으로 한·메르코수르 FTA 가능성에 대한 해답은 상당히 복잡하다. 비록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메르코수르 양 지역 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조만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위의 two-level 차원의 논

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당히 유보적이다. 메르코수르 대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의 국내·대외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선택 변수가 너무 복잡하다. 메르코수르 개방주의를 리드하고 있는 브라질 테메르 정부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조짐 그리고 2018년 10월에 있을 브라질 대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의 지속, 아르헨티나의 2017년 10월 총선에서 현 마끄리 정부의 다수의 정치적 지지(혹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획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선불리 한·메르코수르 FTA 협정체결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힘들게 한다. 비록 국제적·대외 레벨에서 공동체 차원의 회원국들 공동으로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등장에 대한 연대 강화,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메르코수르에 영향력을 팽창해 오던 중국의 후퇴(일시적?)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은 그 대안으로써 개방주의 선택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내 차원의 다소 복잡한 정치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일종의 '리토릭(수사학)' 혹은 '일시적 위기 국면 타개' 전략으로 이해된다면, 현재 인터넷과 많은 기업, 정부의 정책방안, 보고서 등에서 다루고 있는 메르코수르의 '개방주의'라는 용어의 함의는 물론 실질적 정책 이행 가능성과 진정성은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글 하상섭(한국외대 한중남미비즈니스융합센터 연구교수)

지난 3월 1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한국과 중미 5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아메리카 FTA 퍼즐이 거의 맞춰지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2011년 한·페루 FTA 발효, 그리고 작년 한·콜롬비아 FTA 발효, 그리고 2012년과 2015년 각각 발효된 한·미, 한·캐나다 FTA, 이들로 하여금 남미와 북미의 FTA 퍼즐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마친 한·중미 FTA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며, 북-중-남미로 연결되는 아메리카판 FTA 퍼즐이 비로소 거의 맞춰졌다.

한국이 2017년 현재 총 몇 개의 국가들과 몇 개의 FTA 협정을 체결, 발효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이 바로 남미국가 칠레였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아마 전자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시 한국은 첫 FTA 협정에서 찾아오는 약간의 우려심과 그에 따른 국민 정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우리와 경제, 산업적 측면의 모든 면에서 다른 지구 반대편 남미국가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택했던 바 있다. 이후 간간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몇몇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 발효 소식은 전해졌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한·메르코수르 간의 FTA 논의는 2009년 이후 소원해진 상태였고, 우리의 FTA 정책 아젠다에는 미국과 EU, 중국으로 이어지는 거대 경제권과 당장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이점을 살리기 보다 용이한 인근 동남아 국가들이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었던 까닭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 세계 GDP 7~80%의 경제 영토는 일부 대륙이나 지역에 편향됨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한·중미 FTA의 실질 타결로 우리 FTA 네트워크는 나름의 균형을 찾고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을 찾았다.

개시부터 타결까지: 나가고 바뀌고

이번에 우리와 FTA 실질 타결에 성공한 중미는 그 구성이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미 간 FTA에 대하여 최초로 공동연구가 개시된 2010년 10월 말 당시 중미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의 6개국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공동연구가 종료되던 시점에선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탈해, 총 5개국이 되었다. 2015년 4월 한·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던 때에는 니카라과가 합류해 다시 6개국으로 변하더니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실질 타결 후 가서명을 할 당시에는 한국과 마지막까지 상품, 원산지 분야에서 잔여 쟁점을 협상하던 과테말라가 추후 가입을 약속한 뒤 이탈, 다시 5개국으로 마무리되었다.

정책적·법적 의의와 시사점

이번 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여러 중미 국가 다수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시장 선점의 우위를 갖게 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5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이로 인한 중국과의 첨예한 양안갈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움직임이 어려운 대만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라는 것이다. 만약 상기 중미 5개국이 연합의 성격으로 먼저 대만과 FTA를 발효했다라면, 앞서 말한 아시아 최초의 자리는 대만이 먼저 차지할 뻔 했다.

이번 FTA로 중미 5개국은 한국에 대하여 95% 이상(전체 품목수 기준)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 한·EU FTA의 99%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중 FTA 91.4% 수준보다는 높은 수치다. 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시장개방의 내용이다. 이번 FTA를 통해 중미 시장에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 등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치, 서스펜션, 기어박스 등), 의약품, 화장품, 음료(알로에), 섬유(섬유사, 편직물)등도 신시장 개척의 길이 열렸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며 중소기업 진흥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 신 문재인 정부에도 추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협상 결과

우리나라도 이번 FTA에서 영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중미 국가의 주력상품인 커피,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설탕 등을 기존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 수준으로 개방해 우리의 니즈(needs)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고추, 양파, 마늘 등은 민감 품목으로써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쌀은 아예 협정 자체에서 제외하며 거의 완벽하게 우리의 원즈(wants) 또한 관철시켰다. 그 외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철폐,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을 매겼다. 서비스 챕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마쳤다. 이는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북미시장에 비해서 우리 서비스업이 우위를 가질 여지가 더 많은 중미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포착했다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통신 분야에선 비차별접근, 공정경쟁의 여건을 제도화하는데 성공했고, 투자 역시도 투자자유화와 동시에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ISD)를 도입해 우리 투자자들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 수출 및 기업 진출의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한류 사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지재권 보호제도 역시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부조달부분이다. 이번 FTA로 WTO 체제 하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가들의 조달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언어적 이점으로 스페인 또는 브라질, 그 외 이탈리아 기업 정도가 주도해온 정부조달 사업에 한국기업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발효 이후에는 특히 에너지 인프라 부분이나, 도로, 지하철 및 교량 등의 건설분야에 전통적으로 강한 우리 기업의 공격적 기회 포착이 요구된다. 총 24개의 챕터,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한·중미 FTA 협정문은 기존 영문과 한글은 물론,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스페인어까지 총 3개국어로 발효에 맞춰 번역될 예정이다. 이번 한·중미 FTA는 이후 한·메르코수르 FTA의 재추진 및 발효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중미 5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60개에 가까운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이를 UN 193개 회원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거의 전 세계 1/3 수준의 국가들과 자유무역의 왕도(王)를 확보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의 사례처럼 한 번에 여러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발생하는 FTA 활용의 어려움, 국가별 상이한 제도,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이번 한·중미 FTA에서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아직 시간이 남은 발효 이전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도 적극 준비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한·중미 FTA 국가별 양허 현황(수입액 기준)

우리 측의 대중미 양허 현황					중미 측의 대한국 양허 현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100.0%	100.0%	98.7%	100.0%	99.5%	98.0%	98.1%	93.2%	99.1%	99.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그칠 줄 모르는 시와 노래의 도시 칠레의 산티아고

“뼈에 사무치는 고통, 절망적인 사랑, 그리고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소설.” 칠레 작가 루이스 세풀베라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이 나라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다. 오는 2018년에 독립 공화국 선포 200주년을 맞이하는 칠레인들은 뼈 아픈 역사적 경험을 아름다운 사랑의 시로 변모시켜왔다. 남위 18도에서 56도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와 풍경을 깊은 울림의 노래로 표현해왔고,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해왔다. 수도인 산티아고는 그 길고 아름다운 나라의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보석이다.

산타루시아 언덕에 오르면 산티아고의 오래된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다. 그곳에는 이 도시를 세운 스페인 정복자 발디비아와 그에 저항했던 원주민 추장 카우포리칸의 동상이 서 있다. 다른 지역의 역사박물관에도 백인 정복자와 원주민의 모습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칠레인 마음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이다.

칠레의 상징이 된 문학과 영화

칠레의 문학적 토양은 세계적으로 이름 높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파블로 네루다 등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들과 이사벨 아옌데, 루이스 세풀베라 등 다양한 성향의 소설가들은 해외에서도 큰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네루다는 시인, 외교관, 정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1 산티아고에는 '남미의 파리'라 불릴 만한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축물과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활발한 길거리 문화가 잘 섞여 있다.

2 화재와 지진을 겪으며 여러 번 재건축된 산티아고 대성당에는 그 시련의 흔적들이 지층처럼 쌓여 어떤 벽은 두께가 1m나 된다.

칠레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왔다. 국내의 여러 소설과 영화에서 네루다를 캐릭터 삼아 상상의 날개를 펴기도 했다.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는 네루다가 이탈리아의 어촌 마을에 머물렀을 때 그곳 우편 배달부와 우정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칠레 영화 <네루다>는 그가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했다가 지명 수배된 뒤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로 탈출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네루다에 대한 산티아고 시민들의 사랑 역시 각별하다. 산

티아고 시내에는 네루다가 애인 마틸드와 함께 살려고 지은 집 '라차스 코냐' 건물이 박물관 형태로 남아 있다. 그의 친구인 멕시코의 국민 화가 디에고 리베라 등이 와서 머물기도 했는데, 리베라가 마틸드를 그린 초상화도 유명하다. 구불구불한 빨간 머리칼의 마틸드를 두 개의 머리로 표현했는데, 그림 속에 네루다의 얼굴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감춰두기도 했다.

영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는 칠레의 현대사는 물론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 역할을 한다. 1970년 칠레는 아옌데 대통령을 선출해 짧은 민주화의 봄을 맞이했는데, 1973년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오랜 독재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 라디오에 쿠데타 군의 암호로 전파되었던 말이 '지금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였다. 산티아고의 헌법 광장과 자유 광장 사이에 있는 모네다 궁전은 당시 아옌데 대통령이 쿠데타에 저항하다 최후를 맞은 곳이다.

영화 속에서 쿠데타 군이 체육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자 모두 겁에 질려 머리를 숙인 장면이 나온다. 그때 한 젊은이가 노래를 곳곳이 들고 노래한다. “벤세레모스, 벤세레모스(단결하라, 단결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 그가 바로 전설적인 민중 가수 빅토르 하라였다. 그는 손목이 부러진 주검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이끈 ‘누에바 칸시온’이라는 노래 운동은 칠레는 물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 미국의 조안 바에즈 등이 불러 유명해진 노래 ‘삶에 감사합니다(Gracias a la Vida)’ 역시 산티아고에서 태어났다. 비올레타 빠라는 산티아고 대학 박물관장을 지내기도 한 민속학자였는데, 1950년대 네루다의 권유로 칠레 전역의 민속 음악을 채집했다. 그러다 직접 만든 이 노래가 누에바 칸시온의 대표곡이 된 것이다.

칠레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산티아고에는 1857년에 개관한 산티아고 극장 등 많은 공연장이 있는데, 교향곡, 발레, 오페라 등 고전 음악의 여러 장르를 열렬히 사랑해온 이곳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 바리톤 라몬 비나이,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가야르도 도마스 등이 칠레 출신이다. 산티아고 극장이 매년 여는 ‘푸르탈라 음악 주간’에는 전 세계의 클래식 마니아들이 몰려든다. 때론 이런 공연장에서 여러 민속 음악과 더불어 쿠에카(Cueca)라는 민속 춤을 즐길 수도 있다. 빠르고 흥겨운 기타 음악에 맞춰 남녀가 손수건을 흔들며 서로 스치고 물러서고 뒤쫓는 구애의 춤이다.

칠레의 대중문화는 독재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지만 1990년대부터 되



3 영화 <일 포스티노>는 칠레 문화의 아이콘인 네루다의 이야기를, 영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는 칠레의 현대사와 칠레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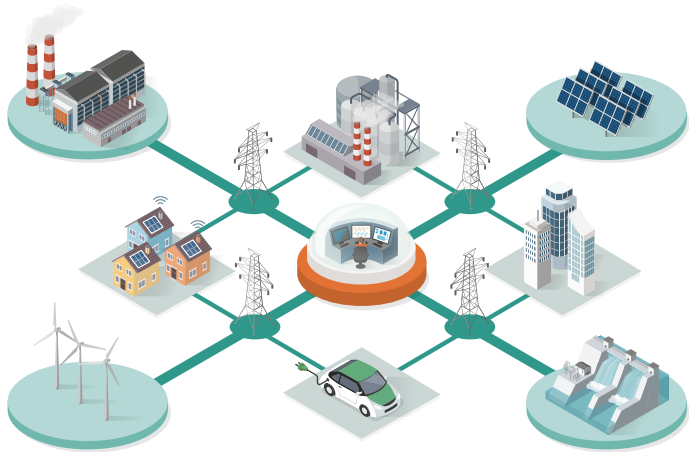
살아났다. 산타루시아 언덕 동쪽인 라스타리아는 한때 ‘보헤미안 허브’로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야외 베틀시장과 카페, 레스토랑, 라이브 음악이 흥청대는 장소가 되었다. 시내 북동쪽의 벨라비스타 지역은 극장, 영화관, 카페, 박물관 등이 몰려 있는 곳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 시설로는 센트로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있다.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센터로, 라틴 아메리카 여성 작가 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의 이름을 붙였다.

칠레는 2012년 산티아고에서 K-POP 음악 방송 <뮤직뱅크>의 공연이 이루어질 만큼 라틴 아메리카 한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방탄소년단이 산티아고 모비스타 아레나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벌이기도 했다. 드라마 <최고의 사랑>과 <파스타> 등이 인기몰이를 했고, 중남미에서 아시아 음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칠레 와인이 가장 대중적인 와인으로 등극하고 있다. 지구본 정반대편에 있는 한국과 칠레, 두 나라가 아주 빠르게 가까운 친구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글 이명석



페루 최초의 산업 신도시, MacrOpolis 산업단지 프로젝트



최근 MacrOpolis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페루 리마 남부지역에 각종 백화점, 금융기관, 대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리마 남부지역 아파트 공급 등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각종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다. 리마 수도권에 약 84만 2533개 기업체가 있으며, 그 중 약 12%가 리마 남부에 소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MacrOpolis를 중심으로 리마 남부지역에 각종 쇼핑몰, 슈퍼마켓, 주유소, 은행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새로운 산업 단지의 추진 배경

1997년 당시 Chorrillos지역과 Av. Argentina를 따라 형성된 공장 밀집지역이 포화단계에 진입했다. 산발적 개발 및 도시 외연확산으로 리마 수도권 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무질서하게 혼재되며 도심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Centenario사가 페루 최초의 계획 산업도시 MacrOpolis 프로젝트를 고안, San Borja 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1000헥타르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MacrOpolis 산업단지의 규모는 약 980헥타르에 달하며, 최소

1000㎡ 면적의 분양지를 제공했다. 페루 수도 리마의 금융 중심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25km, 40분 거리의 루린(Lurin) 지역에 소재한다.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동산 컨설팅 기업 Binswanger Peru의 투자분석가 George Limache에 따르면, 리마 남부지역의 공장 운영비용이 리마 수도권 소재 공장의 평균 운영비용 대비 28%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리마 남부지역의 산업부지 평균가격은 ㎡당 약 914달러이며, 공실률은 5~10%로 매우 낮다. 독일 기업 쿨네앤드나겔(Kuehne&Nagel)사의 경우 현재 리마 남부지역에 2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MacrOpolis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향후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약 6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MacrOpolis 산업단지는 수도 리마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남미 간 최단거리 항공인 카야오(Callao)항구와 근접해 있어 향후 한국 기업이 입주할 경우 무역과 생산을 위한 원료 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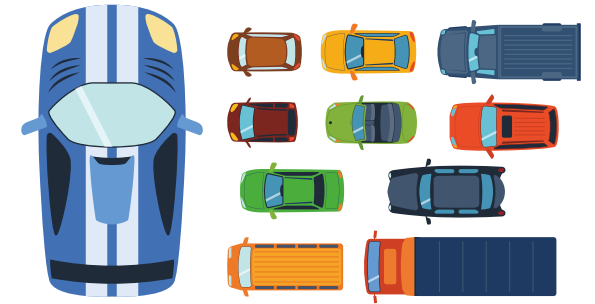


2017년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 예보 전년 대비 ‘맑음’

콜롬비아 전국상인연맹(FENALCO)은 2017년 자동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2월 판매량 증가로 올해 25만 5000대로 전년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수입량을 줄여 2014년부터 자동차 수입이 꾸준히 감소했고 2017년에는 새로 적용된 부가가치세 인상(16% → 19%)으로 인한 구매자들의 구매 심리 위축으로 판매 감소가 예상됐으나, 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유가 상승 및 콜롬비아 페소 환율 평가절상으로 판매량이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와 현대 자동차의 복귀

2016년까지 다양한 혜택(관세 0%, 부가가치세 5%, 자동차 휴일제 제외)을 가졌던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16년 동안 865대[전기(489대), 하이브리드(376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이 제품의 2017년 관세는 미정이나,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수요를 증가를 위해 낮은 관세 지정 및 차량 구매 지원금 정책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대 자동차의 콜롬비아 시장 복귀가 기대된다. 2016년까지 구 판매대행업체 마토스(Mattos)사와의 문제로 판매 정지까지 갔던 현대 자동차는 2017년 신규 판매업체인 네오코프(Neocorp)사와 함께 콜롬비아 시장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I20 및 Elantra와 같은 모델의 판매를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1000대가 넘는 자동차 판매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판매 목표는 시장 점유율 6.7%에 해당하는 1만 6000대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구매 지원금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급차 시장에도 변동이 일었다. 최고급 자동차시장 점유율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해왔던 BMW가 2017년 1월에는 180대 판매로 2위로 밀려나면서, Mercedes Benz에 1위를 빼앗겼고, 그 뒤를 Volvo가 69대로 3위를, Audi가 63대로 4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시장 최대 3%까지 성장 기대

현재 부가가치세 상승 및 지속된 콜롬비아 페소 평가절하로 기업과 소비자들을 심리 위축된 상태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기업들은 신차 출시를 통한 새로운 사양과 디자인을 제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2017년에는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진행할 신규 고속도로 설립, 거리 보수 및 확대, 등 다양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자동차협회(ANDEMOS)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2017년 자동차 전체 판매량이 2016년 대비 0.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제 활성화로 인해 최대 3%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다.☞

자료 KOTRA 페루·콜롬비아 무역관 보고서
정리 박주연 기자

어려운 무역기사 쉽게 읽는 법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단어

여러나라와 FTA 체결 시 활용률이 저하되는 스파게티볼 효과 등을 생각하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 트럼프 취임 이후 TPP가 트럼프 방식으로 변형돼 다시 살아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6. 11. 17. 연합뉴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복잡한 규정과 활용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천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총 16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타결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동기를 유발하는 선발자를 가르키는 말로 2008년 4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의 마지막 수업에서 나온 말이다. 무리지어 생활하는 펭귄들은 먹잇감을 구하러 바다에 들어가는데, 바다 앞에 서서 두려워 머뭇거릴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도 뒤따라 뛰어들도록 이끄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 랜디 포시 교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으며, 최근 아이디어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신생 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이른바 '퍼스트 펭귄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

경제적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패턴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치품(기호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 산업별 매출 통계에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립스틱 매출은 오르는 기현상이 확인되어 경제학자들이 붙인 용어로,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로더는 경제와 립스틱 매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립스틱 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사치품(기호품) 소비는 '자기 형편에 맞춘 작은 사치'로서 불황기를 극복하는 합리적 소비패턴인 셈이다.☺

메르코수르(Mercosur) 경제지표



〈함께하는 FTA〉 제1기 청년 리포터들은 지난 6월 1일 열린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장을 수여받았다.



젊은 열정과 참신한 시선으로 다가올 새로운 FTA를 기대해주세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10년, 자유무역과 FTA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세계의 통상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한국 통상을 이끌어갈 혁신적이고 신선한 인재를 발굴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선을 공유하고자 〈함께하는 FTA〉에서 제1기 FTA 청년 리포터를 선발했습니다.

총 4팀으로 구성된 이번 FTA 청년 리포터는 앞으로 4개월에 걸쳐 국내외 통상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FTA와 자유무역에 관한 신선한 기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시작될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세계의 주인공은 한국, 너야 너!

팀명 : Face To All(FTA)
백리브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학과, 하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학과

이번 청년 FTA 리포터로 선발된 Face To All (FTA)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한국처럼 저희도 세계와 소통하며 마주하자는 마음으로 팀명을 정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기획으로 독자들

하여금 새로운 관점의 FTA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선후배 사이로, 라틴의 열정을 이어받아 하나의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멕시코 작은 어촌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마에스트로 하철민 리포터와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토테 브라질 레이라 백리브가 리포터가 중남미를 넘어 세계 FTA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FTA 리포터를 통해 현재까지 FTA가 발효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한 장점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듀스 101'의 서바이벌 방식을 차용하여 기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FTA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잇츠 FTA타임!

자유무역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팀명 : 해리포터(해외 FTA 뉴스를 리포트하다)
강주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지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주연, 이지원입니다. 2년 전 같은 과 선배 사이로 만나, FTA와 국제경제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로 뭉쳤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환경과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은 환경보호에 저해가 되고, WTO 조항은 환경보다는 무역에 무게의 추가 쏠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자유무역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추어보려 합니다. 나아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환경보호 강자 유럽 지역과,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의 허브 남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유 무역을 통해 친환경 상품, 신재생에너지 상품 등의 수출입이 어떻게 촉진되고 있을지,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함께하는 FTA〉에 게재될 저희 기사 많이 기대해주세요!

FTA를 통한 생활 혜택, 여러분은 받고 있나요?

팀명 : 81110
김정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재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안녕하십니까! 청년 FTA 기자단 81110팀입니다. 팀명인 81110은 공군의 헌병 특기 번호로서, 같은 병과 출신인 저희 둘의 인연을 이어준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FTA의 긍정적 효과는 그동안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GDP나 일자리 등과 관련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들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격효과,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에 따른 미시적 관점에서 소비자들

이 FTA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랍게도 아직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FTA의 혜택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구(해외에서 직접구매)의 경험자는 응답자의 54%에 불과했으며, 이중에서도 오직 23%만이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각 FTA 체결국마다 상이한 관세 기준과 복잡한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 등 관세 효과를 누리는 것에 있어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직접 움직일 때 FTA 관세효과를 어떤 식으로 누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는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적재산권을 구하라

팀명 : 지구로
안민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구수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저희 조의 취재 목표는 국가 간의 FTA체결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갖는 의미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명을 '지적재산권을 구하로'의 약자인 '지구로'로 정하여 FTA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을 표현함과 더불어 한국을 넘어 지구 즉, 세계로 향하여 자유무역의 가치를 설파하는 청년 FTA 리포터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한·중 FTA는 중국이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시장이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나 투자는 매우 활발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 기업의 기술 도용 및 상표 무단 선 등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의 수가 많다는 점, 또한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게 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한·중 FTA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무역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FTA가 가지는 이점을 밝히고, 앞으로 있을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글 박주연 기자



K-FOOD로 전 세계 입맛 사로잡다

최근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늘어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본토의 한식을 먹길 원하는 해외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K-FOOD를 접할 수 있는 한식당 및 한국식품은 전문적인 매뉴얼이 없이 운영되어 온 터에 최근 들어 표기법 오류와 본토와의 맛과는 확연히 다른 맛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한식진흥사업은 해외한식당 교육 및 K-FOOD 홍보를 통해 해외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리 박주연 기자

농어업인의 FTA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자유무역 확산의 이면에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약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FTA 대응 과정에서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었던 대표적인 지원사업과 이것을 발판삼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례를 소개한다.

✦ FTA 지원대책사업: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이란?

한식·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한식당지원,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음식관광활성화,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식재단을 거점으로 '한식문화관' 조성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음식관광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국제미식행사 등을 통해 한식 시연 및 시식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적이고 간편한 '한식'을 선보이다

2000년에 설립된 봉추푸드시스템은 그 누구보다 한국적인 '한식'을 고집하며 전 세계적인 한식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봉추푸드시스템은 안동닭찜 전문브랜드인 봉추찜닭과 누구나 간단하게 소스만 부으면 김치와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한 큐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식품기업이다. 봉추찜닭은 2000년 서울 혜화점을 시작으로 187개의 가맹점을 출점했으며, 이 중국외가맹점인 7점포는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 위치해 있다. 이 국외가맹점은 국내 가맹점과 동일한 맛을 유지하며 현지 교포 외에도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홍콩, 대만점의 출점이 예정돼 있는 등, 앞



캄보디아에 진출한 프놈펜 1호점



해외식품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봉추푸드시스템

으로도 경북 안동의 먹거리인 닭찜을 세계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 큐는 K-FOOD를 먹고 싶지만 조리법이 어려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외소비자들을 위해 개발된 분말소스 브랜드이다. 누구나 각종 채소 및 재료를 준비해 소스를 넣고 가볍게 버무리면 김치를, 끓이기만 하면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 이 제품은 2015년 첫선을 보인 이후로 단 1년 만에 홍콩, 베트남, 스페인, 중국 등의 수출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등 엄청난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해외박람회 참여해 수출가능성 높여

이처럼 봉추푸드시스템이 봉추찜닭, 한 큐 등 단 2개의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K-FOOD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은 정부지원 하에 실시되고 있는 해외식품박람회 참여가 주요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만 유명세를 떨쳐왔던 봉추푸드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 본토의 맛을 전 세계로 알리고 수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하는 해외식품박람회 및 K-푸드페어에 참여했다. 이에 봉추푸드시스템은 2015년 홍콩·말레이시아 해외식품박람회에 이어 2016년 싱가포르·태국 해외식품박람회 및 베트남·인도네시

아·태국 K-푸드페어 등 다수의 식품박람회에 참여하며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봉추푸드시스템은 해당 박람회의 참여를 통해 신시장개척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다국가 현지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다년간 식품박람회 참여를 지원해 온 농식품부와 aT의 조언을 통해 매번 박람회마다 더 나은 마케팅 전략 내 세워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해외바이어 피드백 활용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에 봉추푸드시스템은 박람회 내 바이어매칭 수출상담을 활용해 현지시장진입 전략을 계속 보완해 나갔다. 특히 지속적인 대응과 POP 등 홍보자료를 제공한 것이 큰 몫을 했다. 먼저 부스를 방문한 바이어들에게 샘플과 영문 및 중문 등 현지어로 번역된 제품설명과 조리법 브로셔와 자체 제작한 조리법 시연 동영상 배포했다. 이에 바이어들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 봉추푸드시스템은 바이어 상담마다 각 국가의 소비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바이어들의 조언을 통해 홍콩시장에는 기존(200g) 패키지를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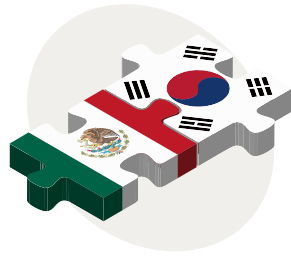
장준수 ㈜봉추푸드시스템 대표

해외식품박람회, 신시장 개척교두보 제대로 된 한식 알리기 앞장

"성공적인 농식품 수출의 지름길은 '가장 한국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현지에서 판매할 바이어를 찾는 것입니다. 봉추푸드시스템은 한국적인 맛을 담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식품박람회에 출품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찾는 해외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한국 여행 시에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 하는 해외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 정말 한국 본토의 맛을 담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직접 현지바이어들을 만나며 수출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식품박람회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제대로 된 한식을 알리겠습니다."

를 150g, 30g등의 소포장 형태로 출시했다. 2014년 9월에는 할랄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중동 여러 지역을 포함한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의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식품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태국을 공략키 위해 2016년 9월에는 떡 등의 재료도 담겨 있는 '킵 떡볶이' 제품을 출시기도 했다. 이처럼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귀 기울여 단점을 보완한 것은 기존 거래처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바이어들을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 본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농어업인 FTA 성공사례>에 게재된 기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회항(回航)을 회상(回想)하며 꿈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한국은 멕시코와의 FTA에 있어서 한 차례 쓴 맛을 본 경험이 있다. 당시 칠레와의 첫 FTA 발효에 성공했던 2004년의 이면에는 멕시코와 FTA 미체결로 인한 아픈 기억도 있다. ‘FTA 스페셜리스트’ 멕시코와의 FTA는 우리의 신정부 출범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다시금 동력을 얻게 되었다.

“2008년 이후 중단된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길 기대한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과 나눈 대화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양국 간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2002년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발효했고, 2004년부터 FTA를 추진했지만 2008년 멕시코 업계(철강 및 자동차)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잠정 휴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멕시코 FTA의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되어왔고 최근 TPP 좌초, NA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대두로 상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양국 FTA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0년대 초중반 멕시코는 ‘헤비급’ 파트너

한국은 2004년 첫 FTA 발효 상대로 칠레를 선택했다. 아마 여기서 멕시코는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낀 듯하다. 당시 중남미 국가 중 FTA를 선두하고 있던 멕시코의 입장에서선 나름 경쟁상대인 칠레에게 아시아 무역국가 한국과의 FTA 발효를 빼앗겼다는 인상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같은 시기 멕시코는 한국 대신 우리 경쟁상대인 일본과 FTA를 타결, 발효시켜버렸다. 칠레가 먼저냐 멕시코가 먼저냐, 한

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정답은 없지만 아무튼 한국과 멕시코는 이렇듯 ‘잘못된 만남’으로 양자 FTA의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멕시코는 ‘FTA 초년생’ 우리 입장에서 칠레에 앞서 도전하기엔 FTA 무대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나라였다. 현재 기준 멕시코는 인근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니카라과, 칠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페루, 파나마)는 물론 북미의 미국, 캐나다와는 NAFTA, 그리고 유럽의 EU, EFTA와 FTA, 아시아 일본과 양자 FTA, 심지어 중동의 이스라엘과도 FTA를 발효시킨 상태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PP의 창립 멤버로도 참여 중이다.¹ 더불어 협상 중이 아닌, 이미 발효된 FTA를 폐기시킨 매우 드문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멕시코다. 2010년 볼리비아와 FTA

¹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는 이러한 멕시코도 아시아와의 FTA는 일본 외에 없다는 점, 그리고 몇몇 중남미 국가와는 중복적 FTA를 발효 또는 타결시켰다는 점이다(예: G3, Northern Triangle, 중미, 태평양동맹).

² 2012년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FTA협정이 파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당시 전 세계에 발효 중인 FTA 297건 기준)로 멕시코의 경험은 유의미하다. 1987년 체결된 미·캐나다 FTA가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으로 폐기된 사례는 폐기가 아닌 협정의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로 봐야할 것이다

를 파기하고 이를 양국간 경제보완협정(ACE 66: 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으로 대체했던 추억이 있다.²

태평양을 두 번 횡단하며 느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

2004년 2월 10일 밤 9시(현지시간) 멕시코 만사니요 항구는 마치 초상집과도 같았다. 한국행 선박에 선적되던 것은 한국에 가져갈 멕시코산 수출품이 아니었다. 멕시코에 수출돼 20일간 태평양을 건너 뱃길을 달려온 한국산 타이어가 멕시코 통관도 거치지 못하고 반송 결정되면서 하역 한 달여 만에 다시 선적된 것. 2003년 12월 21일 부푼 마음을 안고 부산에서 출항한 선박에는 무려 120만 달러 가치의 수출용 타이어가 컨테이너 34개를 꽂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선박이 아직 태평양 한가운데 파도를 가르고 있던 시점에 멕시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가 있었다. 자국과 FTA 미체결 국가의 제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매긴다는 것이었고 한국산 수출용 타이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출항 당시 관세 23%(통관가격 기준)에 긴급관세(평균 63%)를 추가로 매긴다는 것이었다. 미국산이나 유럽산은 무관세 혜택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팔기 위해 일단 만사니요 항구에 가지고 온 타이어들을 하역했지만, 항구에 보관료만 물어야 했을 뿐, 가능성은 요원했다. 그나마 34개 컨테이너 물량 중 일부는 미국과 캐나다로 헐값에 팔았으나 나머지 14개 분량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고가의 컨테이너 선박운임도 함께 날아가 버렸다. 이에 앞서 또 다른 한국산 타이어도 같은 경험을 했으나 반면 교사가 되어주지 못했다. 우신통상을 통해 멕시코로 한국산 타이어가 최초 수출되었던 1979년 이후 최초로 연출된 눈물의 장면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산 타이어는 멕시코 내 시장점유율 2위였으나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 점유율이 급락한 것은 물론, 이어 멕시코와 FTA를 발효시킨 일본산에도 밀리게 되었다.

2017년 한·멕시코 FTA의 시사점

2004년 멕시코를 통해 우리는 FTA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그야말로 절감(切感)했다. 당시만 해도 멕시코에 비해 FTA 경험이 미천했던 한국은 13년여 만에 멕시코를 압도할 수 있는 FTA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드라마틱한 컴백을 했다. 이제 다시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해 볼 적기가 다가왔다. 멕시코는 우리와 FTA 미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한국 제1의 교역상대이며 스페인어권 국가 중에 인구가 1위(1억 2,300만 명)로 시장도 크다. 앞서 목격한 바와 같이 개방경제 형태에, 자원과 노동력도 풍부하다. 지속되어 온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으로 양국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에 대해 협조하고, 경제, 금융, 교통, 건설, 정보통신 등 다방면에 걸쳐 장관급 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등 최근 양국 간 정치외교적 분위기도 매우 좋다. 한국은 TV,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에 멕시코는 동제품이나 농산물에 강점이 있어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성도 적절하다.

한국이 최근 중미 5개국과 FTA를 실질타결, 가시명하며 거의 맞춰진 미 대륙 FTA 퍼즐에 멕시코와의 FTA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메르코수르와의 FTA에도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메르코수르는 최근 중국, EU, 멕시코에 FTA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 이미 중국, EU와 FTA를 발효시킨 우리가 멕시코와도 FTA를 발효시킬 경우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치가 대두되면서 한국과 멕시코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한국 역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 타 지역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멕시코, 영국, 중동, 구소련 국가 등과의 FTA도 추진하려 한다. 여기서 멕시코와의 FTA는 최우선 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면 멕시코가 참여했던 TPP 수준의 내용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고, 이를 협상하며 한국도 TPP가입에 대한 대비를 하는 동시에 ‘21세기 통상규범’을 예행연습하고 또 체화(體化)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멕시코와 관계 강화로 한국이 추후 TPP 가입을 추진할 시 멕시코로부터 간접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중국 보호무역장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의 정착과 FTA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무역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것과 달리 국가마다 다른 안전기준이나 등록제도, 인증, 허가, TEST, 라벨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술규제는 국민의 안전, 환경 보호 등의 목적도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최근 들어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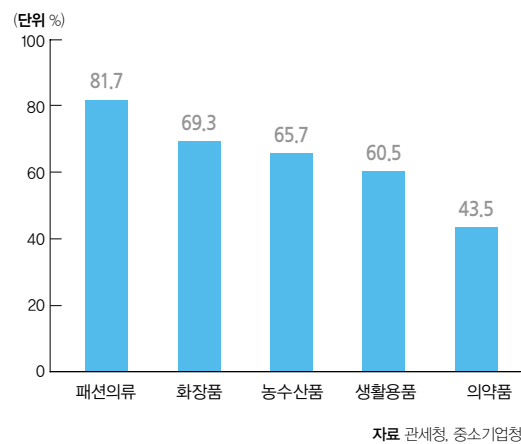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액이 225억 달러(약 26조600억 원)로 전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은 총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22.6%로, 대기업(26.5%)보다 3.9% 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한류 영향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일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도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았다. 중소기업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보면 패션 의류에서는 중국 수출 비중이 81.7%나 됐으며 화장품도 69.3%로 높았다. 뒤이어 농수산물(65.7%)과 생활용품(60.5%), 의약품(43.5%) 순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중소기업 넷 중 하나, 보호무역 조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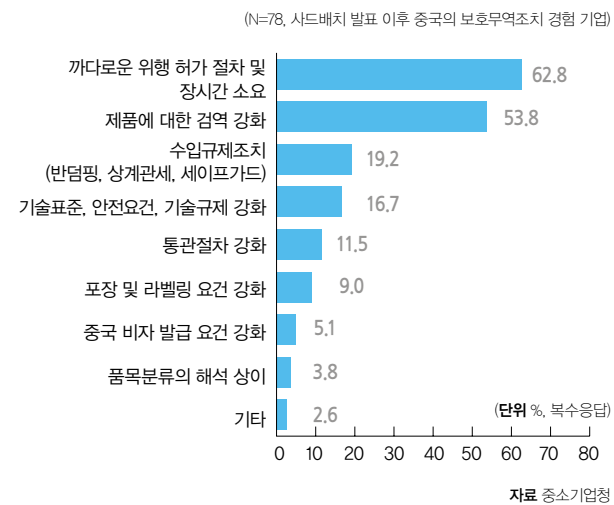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6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사드배치 발표 뒤 중국 수출 과정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다. 기업들이 경험한 보호무역 조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소요시간 장기화'(62.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53.8%), '수입규제 조치'(19.2%), '기술안전 요건과 기술

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세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적힌 원산지 영문 표기를 PUSAN에서 BUSAN으로 바꾸라며 두 달째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또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사탕제품에 비타민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사탕을 의약품으로 재분류하라며 통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전체적으로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 중국기업 품목별 대중국 수출 비중
(상위 5순위, 2016년 기준)



●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유형



그 전보다 높은 수출 장벽에 직면해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보복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불허 건수 한국이 가장 높아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검역 강화 역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 불허 상황을 보면 2012년 이후 검역당국의 점검에 의한 식품수입 불허가 2,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수입식품 불허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특히 2014년의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61.9%나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는 2배 이상 늘었다. 화장품은 식품보다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작년에는 200건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 수입 불허 건수는 한국, 호주, 대만 순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것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검역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식품 수입 불허 최다 원인은 '미생물 수 초과', 화장품은 '중서 미비'였다.

수출을 대비한 기본적인 원칙 철저히 지켜야

중국의 각종 규제 및 세관의 관리 강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사후심사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사전심사제도이며 수입과정에 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다단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하다. 따라서 허술한 서류로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한·중 원산지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의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수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이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안전기술규범 시행으로 안전요구가 강화되고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중 간 전기전자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KC 173개 종류, CCC 104개 종류)으로 TBT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한·중 표준 차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 화장품은 그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안전성 등에 관한 중요 이슈가 아닌 행정적 실수는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건부 승인했으나 최근에는 과도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식품 역시 과거에는 '서류 미비', '외포장 등의 부적합'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위생표준 미흡', '성분 부적합'의 비중이 높다. 의료기기는 CFDA의 제도적 이슈 발생 시점에 등록 불허율 급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입산이 불허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신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이다.●

출처 KOTRA 베이징 무역관 |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중국 IP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金阿欢 vs 江苏省广播电视总台 외 1 - 상표권 침해

상표 등록 출원 시 각 TV 프로그램의 내용 고려하여 지정상품과 서비스 출원 범위 넓게 지정해야



최근 중국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된 TV 프로그램에 관한 판결이 2016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또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상표권 보호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또는 TV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의 한국 드라마 또는 TV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드라마와 TV 프로그램 명칭을 중국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침해 판단에서 해당 상표권의 명칭(표장)도 동일·유사해야 하지만, 그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도 동일·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동일한 드라마 또는 TV 프로그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와 더불어 판매되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해당 상표권의 출원 방향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 김아환(金阿欢, 개인)은 2009년 2월 16일 “非诚勿扰”를 표장으로, 지정서비스업 제45류 ‘결혼소개소’, ‘교제서비스’ 등¹에 상표 등록 출원하였고, 2010년 9월 7일 최종 상표권을 등록받았으며, 원고는 절강성 온주시(浙江省温州市)에서 실제로 동일한 상표 표장으로 결혼교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강소성방송국(피고1, 江苏省广播电视总台) 및 심천시진 애정보네크워크기술유한공사(피고2, 深圳市珍爱网信息技术有限公司)로서, 피고1은 2010년 1월 15일부터 “非诚勿扰”라는 명칭으로, 다수의 여성들과 1명의 남성이 출원하여 서로를 알아보며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동시간대 타방송에 비

하여 시청률이 2배 이상인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고, 피고2는 데이트 이성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1의 TV 프로그램에 출원한 자들을 모집하여 피고2에게 추천하고, 해당 프로그램 홍보 등의 지원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인 2008년 11월 20일 화이브라더스미디어주식회사(华谊兄弟传媒股份有限公司, 이하 ‘화이브사’라고만 함)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영화상영’, ‘영화제작’ 등 서비스업에 출원하여 2010년 10월 21일 상표 등록을 받았으며, 화이브사는 실제 2009년 12월 22일 “非诚勿扰”라는 로맨스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고, 피고1은 화이브사로부터 해당 TV 데이트 프로그램에 위 상표를 사용하는 허락을 받은 적도 있었다.

중국 법원 소송 내용

원고는 2013년경 1심으로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원고의 상표 표장	실제 원고의 상표 사용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	화이브사의 상표 표장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2014년 9월 29일에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는 원고의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인 ‘결혼소개소’, ‘교제서비스’ 등과 피고들의 TV프로그램 방송은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 사용에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원고는 그 상급 법원인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참고로 중국 상표법에 따른 ‘TV 프로그램’ 서비스업은 원고가 상표 등록 받은 서비스인 제45류가 아닌 제41류에 등록되는 것이 보통인데, 1심 법원은 타류 서비스업 간의 차이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과 달리, 중국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원고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인 ‘결혼소개소’, ‘교제서비스’는 피고들이 방영하고 있는 데이트 TV 프로그램의 성격, 목적에 비추어 유사하며, 원고의 서비스와 피고들이 방영하는 데이트 TV 프로그램 간의 연관이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어 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2는 피고1과 계약을 맺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원자의 모집과 홍보를 직접하였기에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다시 2심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인민법원은 i) 상표법 상의 침해가 되려면 우선 피고들의 “非诚勿扰” 표장 사용이 ‘상표적인 사용’이어야 하는데, 우선 법원은 피고들의 TV 데이트 프로그램에서의 “非诚勿扰” 사용을 서비스 출처표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점에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만, ii) 원고의 지정서비스업인 ‘결혼소개소’, ‘교제서비스’는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반면, 피고들의 TV 프로그램은 일반 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 방식, 내용 및 타겟 소비자들이 다르므로 양 서비스는 유사하지 않으며, iii) 피고들의 TV 프로그램은 매우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양 서비스가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법원에서 원고의 상표권이 화이브사 상표권의 표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에서 선출원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무효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의 영화, TV 프로그램의 명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국 상표 등록을 해야 하며, 상표 등록 출원 시 어떠한 지정상품과 서비스에 출원할 것인지를 각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하여 넓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TV 프로그램 명칭을 제작할 때에도 단순 글씨로만 하기 보다는 저작권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약간의 형태나 문양을 변경하여 상표권적인 보호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권리로 중복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권리 보호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TV 프로그램,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상표 브로커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본 사안은 중국 자국민들 사이의 분쟁이어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 향후 자국민과 외국인들 사이의 해당 분쟁에서는 그 유사범위와 오인·혼동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방송국이나 기업들은 유사판단 범위를 고려하여 다소 넓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연두)

¹ 실제 원고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에는 ‘결혼소개소’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업도 등록되어 있음(원고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 : 결혼소개소, 화제경보기대여, 교제서비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입양대행업, 소화기대여업, 유실물서비스업, 소방서비스업, 조직종교집회업)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난 연재를 통해 알아본 수출기업의 FTA 활용 절차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전반적인 개론만 제시한 총론이었다면, 앞으로는 각 절차별로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각론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I. 사전준비 단계**
- ① FTA 협정국 확인하기
 - ② HS code(품목번호) 확인하기
 - ③ 양허품목 여부 및 양허세율 확인하기
 - ④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하기

- II. 서류준비 단계**
- ⑤ 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 ⑥ 원산지 판정하기
 -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하기

- III. 사후관리 단계**
- ⑧ 서류보관 및 관리하기
 - ⑨ 사후검증 대비하기

FTA 활용에 있어 9가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I. 사전준비단계 II. 서류준비단계 III.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했다.

원산지 기준의 분류		
일반 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중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품목별 기준	분야별 특례 (보충적 기준)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소매용,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완전 생산기준	
	한 국가 또는 계약 당사국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국내에서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부가 가치 기준	국내 제조 공정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가공 공정 기준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원산지 기준이란

원산지란 어떠한 물품의 그 본디의 산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원산지 기준이란 수출입되는 물품이 생산된 국가가 어디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체결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비체결국의 반사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원산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산지 기준의 분류

FTA에서 원산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반기준은 FTA 협정문 본문(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일반기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원칙과 원산지 판정에 있어 원칙에 예외가 되는 분야별 특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FTA에서 품목별기준(PSR)이라 함은 용어 그대로, 원산지 물품을 판별하는 기준을 품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문 부속서에 일반적으로 HS code 6단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물품 및 협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품목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원산지 규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나, 이는 나중에 다룰 '원산지 판정' 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기고문에 모든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FTA 초보자를 위한 본 기고문의 성격 상, 실무적으로 FTA 활용 기업에서 원산지 판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목별 기준(PSR)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품목별 기준(PSR)

품목별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FTA 활용 대상 물품의 최초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 까지 어느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이며,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농축수산물 또는 광물 등 제조공정이 단순한 1차 산품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충족이 가능하다.

공산품의 경우 투입되는 재료가 다양하고 공정이 복잡하여, 어느 한 국가의 재료만 가지고 전적으로 제조되기는 어려우므로 완전생산기준만 고집하게 되면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FTA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로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 및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수행공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실질적 변형기준'인 것이다.

다만 '실질적 변형'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산업의 특성 및 공정 등을 고려하여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라는 것은 결국 활용 대상 물품의 품목별 기준(PSR)을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다.

품목별 기준의 제시 형태

㉠ 단독기준 :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종류 중 어느 하나만을 규정하는 형태(선택 불가)

예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약어) CTH

㉡ 선택기준 :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기준 중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만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형태(선택 가능)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②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이상인 것
약어) CTH or RVC45

㉢ 조합기준 :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중 2개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형태

예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약어) CTH + RVC35 (= CTH and RVC35)

품목별 기준(PSR) 확인방법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문의 부속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HS code 별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며 양허세율과 달리 협정 체약국간에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협정별로는 상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허세율과 마찬가지로 활용대상 물품의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에서 품목별 기준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품목별 및 협정별로 그 기준이 다양하고 표기 방식이 상이하며, 우리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협정문을 직접 찾아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 ①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http://www.customs.go.kr>
- ②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포털사이트 - <http://okfta.kita.net>
- ③ 한국무역협회 Trade NAVI - <http://tradenavi.or.kr>

상기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산지 기준(PSR)'을 클릭하여 활용대상 협정 및 HS code 6단위를 입력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위에서 품목별 기준의 종류를 열거한 것과 같이 단순히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나요?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목록통관, 일반통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직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통관의 종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 접하게 되면 많이 혼동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중 하나인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F씨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은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기 때문에 면세를 예상하고 미국의 인터넷 쇼핑물에서 비타민 6병을 180달러에 구매했다. 그런데, 200달러가 되지 않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왜 그럴까? F씨는 알쏭달쏭한 해외직구의 통관이 궁금하다.

국가 간 물품의 이동에는 세관의 통관절차가 필요하므로 물품이 수출입될 때에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 한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외국의 온라인 쇼핑물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받아볼 때에는 수입통관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신고를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목록통관, 일반통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 목록통관은 서류목록만 검토하고 처리되는 통관이고, 일반통관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통관방식이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은 물품의 가격, 품목 등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혜택 등이 달라진다.

서류심사만으로 간단하게, 목록통관

먼저 해외직구의 상당수가 적용되고 있는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다. 복잡한 수입

신고서의 작성 없이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물품명, 가격 등을 보고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통관절차라고 볼 수 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므로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서 발급받는 일종의 식별부호인 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고 관세 및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도 면제된다. 즉, 목록통관 가능금액이 면세금액이 되는 것이다. 목록통관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화물이 반출되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단축되어 전체 배송기간이 빨라지고 일반통관 시 발생하는 통관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간편한 혜택을 주는 목록통관에는 가능품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의류, 가구, 신발, 가방, 책, 운동용품 등 수입승인 같은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이 목록통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기준은 개인이 사용할(자가사용)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 티셔츠와 신발을 195달러에

구매했거나, 스페인에서 의류를 100달러에 구매했다면 목록통관이 적용되어 관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 아래의 물품은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초콜릿을 구매한 경우 식품류로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대상이 된다. 앞의 사례에서 F씨의 경우 역시 미국 기준 200달러 이내이기는 하지만, 비타민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일반통관으로 진행된 것이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된 물품은 일반통관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된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과 달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록통관에 비해 통관속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목록통관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통상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위임하고 있다. 식품 및 60ml를 초과하는 향수,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류 등 목록통관에 해당되

목록통관 배제대상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제품 등
4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및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 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 않는 모든 물품이 일반통관대상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목록통관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품 이름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가격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일반통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일반통관의 관세부과기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국가에 상관없이 150달러이다. 즉,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과세가격 전체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초콜릿을 구입한 경우 일반통관대상이지만 150달러 이하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F씨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180달러에 구매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였다. 만약 F씨가 145달러에 비타민을 구매했다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관세 등은 면제되었을 것이다.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물품 섞였을 땐, 일반통관으로 절차 진행

한편, 일반통관 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함께 수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전체 품목에 대해 일반통관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가방과 신발만 200달러 이내로 미국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적용되지만, 가방과 신발 외에 일반통관 대상인 초콜릿까지 함께 구매하게 되면 200달러 이내라 하더라도 일반통관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여러 건의 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한 경우에는 이를 1건의 화물로 취급하여 통관한다. 즉,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각각 물품을 주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목록통관 물품인지, 일반통관 물품인지를 잘 확인하여 통관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해보자.☺

클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FTA NEWS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아세안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도약 계기

한·아세안 FTA 1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부 주형환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및 아세안 국가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10년간 성과를 확산하고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시부터 시작된 기념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을 비롯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임홍인(Lim Hong Hin) 아세안사무국 사무차장, 입 웨이 키앗(Yip Wei Kiat) 주한 싱가포르 대사, 다토 모하메드 로슬리(Dato Mohd Rosli) 주한 브루나이 대사 등 아세안 국가 대사들과 유관기관장 및 아세안 지역 외국인 근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및 사진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대체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세안에 대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7 아세안 무역·투자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의 수출 회복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아세안으로 수출다변화를 촉진하고 새 정부의 아세안 협력 강화는 물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 자유화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의약품 작업반, 자동차 작업반, 상품위, 화학물질 작업반, 전기전자대화체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의약품 분야 등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EU FTA(2011년 7월 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통상현안 해소를 통해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양국 업계 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발효 6년차를 맞이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그간 양측이 교역확대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우리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모두의 혜택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초청국(홍콩, 카자흐스탄, 페루) 핵심 협력국(중국, 인도 등 5개국) 등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화 만들기(Making Globaliz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라는 주제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시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원국 간 논의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포용적 무역 성장 추진 방안과 제 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 2017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호 차관보는 동 회의에서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지속해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달의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17 미국 뉴욕 액세서리 서킷

일시 : 2017. 07. 31 ~ 08. 02

개최 국가 : 미국(뉴욕)

전시장 : Jacob K. Javits Center



전시분야 : Casual & fashion bags, Evening bags, Fashion jewelry,
Fashion belts 등

홈페이지 : www.enkshows.com/circuit

이메일 : info@enkshows.com



브라질 국제 주유소·편의점 및 서비스 박람회

일시 : 2017. 08. 15 ~ 2017. 08. 17

개최 국가 : 브라질(상파울루)

전시장 : Expo Center Norte

전시 분야 : Convenience stores products, technologies and
informatics 등

홈페이지 : www.expopostos.com.br

이메일 : expopostos@expopostos.com.br



요르단 암만 건축 박람회

일시 : 2017. 08. 01 ~ 2017. 08. 04

개최 국가 : 요르단(암만)

전시장 : Amman Int'l Motors Show Center

전시품목 : Engineers, Architects & Designer, Consultants,
Planners 등



홈페이지 : www.jordanbuild.net

이메일 : globalexpo@orange.jo



알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FTA〉가 2017년부터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ksn@hankyung.com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연말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함께하는FTA〉를 보신 소감은?
- 〈함께하는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 〈함께하는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ksn@hankyung.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60-4810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발효국가

❶ 한·칠레 FTA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❷ 한·싱가포르 FTA
ASEAN 시장 교두보

❸ 한·EFTA FTA
유럽시장 교두보
*EFTA(서유럽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❹ 한·ASEAN FTA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❺ 한·인도 FTA
BRICS국가 거대시장

❻ 한·EU FTA
세계 최대 경제권
(GDP 기준)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❼ 한·페루 FTA
중남미 진출 교두보

❽ 한·미국 FTA
거대 선진 경제권

❾ 한·터키 FTA
유럽·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❿ 한·호주 FTA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⓫ 한·캐나다 FTA
북미 선진시장

⓬ 한·중국 FTA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⓭ 한·뉴질랜드 FTA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⓮ 한·베트남 FTA
우리의 제3위
투자상대국

⓯ 한·콜롬비아 FTA
중남미 신흥시장

서명/타결 국가

❶ 한·중미 FTA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SICA(중미통합체제 국가 중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협상 중 국가

❶ 한중일 FTA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❷ 한·RCEP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❸ 한·에콰도르 SECA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❹ 한·이스라엘 FTA
창조경제 모델국

재개, 개시, 여건조성 국가

❶ 한·멕시코 FTA
북중미 시장 교두보

❷ 한·EAEU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❸ 한·GCC FTA
자원부국, 기업 선호도 1위
(2015년 기준)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❹ 한·MERCOSUR FTA
남미 최대시장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출이 궁금해?

1380

수출안내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든,
FTA 활용부 수출 및 해외투자정보,
수출거래지원, 금융지원체계 구축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